

'순간'과 '영원' 넘나드는 '깨침의 詩語'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작 '아득한 성자' 등 시 80여편 수록

아득한 성자 오현 스님 시집 | 시학 펴냄 | 1만원

"좋은 말을 하려면 입이 없어야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없어야 한다"는 말로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던 오현 스님(시조시인, 신홍사 회주·그림). 스님은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정지용 선생에게 누가될까 염려된다"며 수상을 부끄러워했다.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작은 '아득한 성자'. 전문은 이렇다.

회록하는 오늘
오늘이라는이회록에

프는해도 다 보고
지는해도 다 보았다고

더이상 볼것 없라고
악하고 죽는 회록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회록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들이 아득한
회록살이 때

김남조 시인은 심사평을 통해 "하루살이의 짧은 생애의 풍요로운 종족을 읊고 있어 충격적이고 시의 지평확대를 아니 지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론가 김재홍 교수(경희대)도 "이슬방울 하나에서 영원을 보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읽어내는 구도적인 명상의 깊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근래 시단의 한 성과"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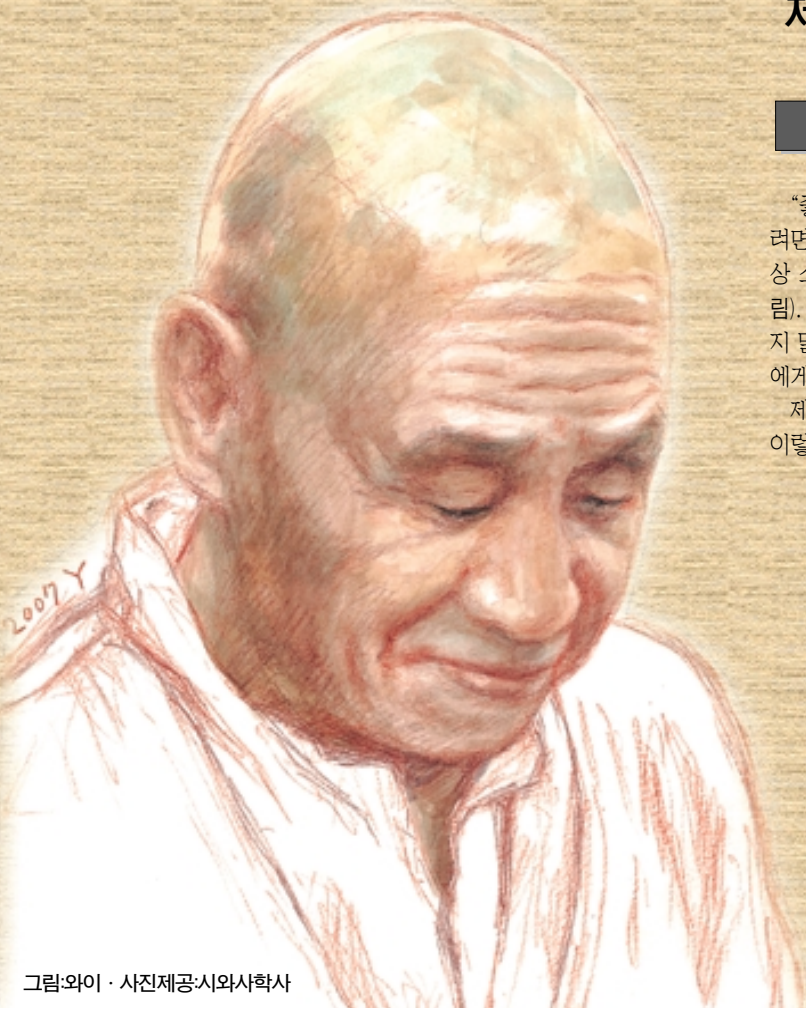
오현 스님이 제19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시집 <아득한 성자>를 냈다. 수상작 외에 80여 편의 근작들을 담았다. 구도자(시인)의 눈에 걸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정황들이 시어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은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부양해 준다.

자유시와 시조 산문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5부로 나뉘어 실렸지만 모든 시편들이 구도와 깨침의 맥박으로 뛰고 있다.

고은 선생은 오현 스님의 시 세계를 '격외(格外)와 의외(意外)'로 읽었다. "벽에 그림을 걸어 두었다니 그 그림이 살아나서 그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게 되다니! 이 격외와 의외가 안개 자욱한 내설악 안개 걸려온 외설악을 아우르고 있다니!"라며 "괴연 오현음(五峯吟)의 높이로다"고 경찬(慶讚)했다.

그러나 정작 오현 스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려야 할 사람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까지 다 내다 버려야 할 놈이, 시를 쓰고 상을 탐하여 상을 타게 된 것이 낯꿈이 아니니 묵형(墨刑)을 받는 것 같다"며 "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돋는다"고 거듭 겸양을 내비친다.

임연대 기자 mian1@hermail.net



그림·와이· 사진제공·시와사화사

수많은 지옥 중생 구제한 지장보살의 법문



지장경

원순 스님 지음
열린마음 펴냄 | 1만2000원

"내 이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이 다하도록 죄를 짓고 고통받는 육도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난 뒤에 서야 내 자신도 성불하리라."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보며 세운 이 원력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돼오고 있다.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영가를 위해 지장보살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재를 지내는 지장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장경>이다. 前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에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는 원순 스님은 <지장경>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옮겨 책으로 펴냈다.

원순 스님은 "불자들이 <지장경>을 여러 번 반복해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긴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에 감동받아 저절로 복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흔히들 지장보살님을 영가천도를 위해 기도드리는 보살님으로만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장 보살님이 구제하고자 한 것은 지옥 중생만이 아니다. 세세생생 지은 업으로 현생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 업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도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제도도 하신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음미'하는 식습관으로 心身 건강하게



붓다의 밥상

카르멘 유엔 지음
강태현 옮김
파피에 펴냄 | 1만2000원

'뽕장' '일짱' '웰빙'과 '몸매 가꾸기'는 요즘 일상용어가 되었다. 각종 매스미디어는 앞을 다투어 미용과 몸매 가꾸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안테나를 바짝 세워 정보를 모은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다. 몸매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건강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해 최근 출간된 <붓다의 밥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건강한 몸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먼저, 바쁜 일상과 편리한 식품기술로 인해 생겨난 '즉석식품'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의 식습관을 경계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챙기기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소개

하는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먹을 때 먹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당근 한 조각, 오렌지 한 개를 씹을 때 그 속에 녹아 있는 햇빛과 비, 바람 여기에 농부의 땀방울 등을 느끼면서 마음을 다해 먹거리를 음미하는 것이다.

저자는 솔직히 이 방법이 간단할 것 같지만 현대인은 '순간에 집중'하는 버릇이 돼 있지 않으므로 사실은 어렵다는 충고도 곁들인다.

하지만 저자는 음식을 먹을 때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을 치워 버리면 먹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적게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다.

평범한 방법이라 다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임상실험 효과를 믿고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다른 보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결망 하나 달랑 메고 떠난... 무구 스님의 세계 여행기



진통개동

무구 스님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여행하는 사람마다 관광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요. 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세 군데는 꼭 가봐야 합니다. 첫째는 박물관이요, 둘째는 동물원, 마지막은 재래시장이입니다."

경주 지장암 주지 무구 스님의 여행 일화이다. 스님은 달랑 결망하나 메고 운수남자의 모습으로 러시아를 비롯해 북유럽, 남미, 그랜드캐년, 아프리카 등을 여행했다. 그리고 그 여정과 견문, 감상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또한 스님은 세계 각국의 여행지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애퍼타이저인 적절한 속담을 써가며 글 읽는 맛을 돋워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움의 숲
2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3	절을 가져게 잘하는 법	정건	붓다의 마음
4	무문에서 꽃이 피다	최민희 편지	운주사
5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이더러
6	염불수행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7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8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9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효림
10	길 찾아 갈 때 떠나	반환자	김영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백련앞에 청개구리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지리산 건불사(실상선원) ☎ 055)962-3931 / Fax 055)962-3920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붓다넷 (www.buddhabook.co.kr)

청정무구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향학에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며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서로 표현한 보덕스님은 지리산 향암에 위치한 건불사 주지로 계시면서 오늘날도 향경법 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배려를 전한다.

얼굴에 분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들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같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너가 여행연습 없이 곳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괄취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